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4년 11월 17일 / 제664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 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 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문성익 제2독서 한수현 / 입당 434 봉헌 216, 210 성체 180, 153 파견 458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Jun Vicencio 2nd Reader Isabella Chung

입당 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다니 12,1-3

화답 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참조)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보이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히브 10,11-14.18

복음환송 |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 하여라. ◎

복음 | 마르 13,24-32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11월 17일	주일학교 YES	Fr. Gerald
11월 24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12월 1일	주일학교 NO	Fr. Augustine
12월 8일	주일학교 YES	Fr. Jim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동식 토마스, 김정희 테레사, 정종락 필립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그날

연중 시기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가난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억압당하거나 소외된 이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등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마도 현재의 관점에서 가난한 이들에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사지로 내몰린 이들도 속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난’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우신 조화로운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이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연중 제33주일인 오늘의 말씀은 종말과 심판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종말을 어둡고 두려운 이미지 안에서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이 그렇습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마르 13,24-25) 마치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모두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종말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다니 12,2)고 전합니다. 이것은 종말 때의 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영광과 수치는 더 이상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의 선택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때입니다. 언제일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날을 위한 준비는 일상에서의,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

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태도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충실한 이들은 그날이 언제 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선을 선택하는 이들은 심판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종말에 관한 말씀은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다가올 언젠가 아니라 오늘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선택으로, 지금의 선택으로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죽음이라는 고통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종말과 심판은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기쁨의 날을 깨어 기다리는 자세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관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跆拳道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문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영성체 전에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제도 영성체 전에 성체를 신자들에게 들어 보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사 때 우리는 왜 성경의 여러 다양한 상징과 표상들 중에서 특별히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할까요?

“하느님의 어린양”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고난받는 ‘아훼의 종’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오실 구세주를 염두에 두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이라고 언급한 것과 연관되기도 하며(이사 53,7),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요한 1,29). 또한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신의 피로 값을 치러 만백성을 구원한 어린양과 연결되기도 합니다(묵시 5,8-12). 이처럼 어린양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희생 제물의 상징적 의미와 주로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양이 가진 이러한 희생의 측면과 연관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참된 파스카의 어린양이자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이 희생 제사인 미사 안에서 재현되고 현재화되기에, 우리 삶의 참된 어린양이신 주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제는 성반이나 성작 위로 성체를 받쳐 들어 올리며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

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쪼개진 성체를 들어 신자들에게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사랑을 다시 주님께서 거둬 가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런 성체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 자신의 노예를 고쳐 주길 청하였던 백인대장의 믿음과 연관된 것으로(루카 7,1-10) 우리 또한 지존하신 주님을 모실 자격은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청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 고백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의탁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합당치 않다’라고 스스로 낮추어 고백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하느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게 되는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은총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고 하는 ‘은총의 본질을 청함’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 참된 영혼의 치유가, 즉 우리의 구원이 이뤄지길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참된 어린양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며, 정성스레 영성체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 하나비 스시 SUSHI HANABI 계상진 빈첸시오 조성아 데 레 사 927 Main Street A Pleasanton, CA 94566 Tel) 925-596-3645</p>



11월 주요 전례 및 행사 일정

- 11월 28일(목): Thanksgiving, 28일(목) - 29일(금) 평일 미사 없음
- 12월 1일(주일): 대림 제1주일(대림시기 말씀살기 시작)
- 12월 7일(토): 대림 특강

2024년 대림시기 말씀살기

- 갈라티아서·에페소서·필리피서·콜로새서·테살로니카서 묵상
- 하루 5분, 성경 읽기
- 묵상 노트 다운로드 www.tvkcc.org/advent2024

2024년 대림특강

- 일시: 12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 장소: 소성당
- 주제: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
- 강사: 이종욱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님 (몬트레이 한인본당 주임)

트라이밸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11월 월례모임

- 일시: 11월 17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Room B
- 문의: 유인숙 요한나

요아킴·안나회 2024년 총회와 송년회 모임

- 일시: 11월 24일(주일), 오전 11시 30분 - 오후 3시
- 장소: The Bridge Club House (9050 S. Gale Ridge Rd, San Ramon)
- 모든 회원들의 많은 참석 환영합니다.

창세기 연수 안내

- Zoom으로 진행되는 창세기 연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일시: 11월 22일(금), 오후 7시 - 10시
11월 23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강사: 배미향 에밀리아 수녀님
- 회비: 연수생(중: \$60, 수료증 포함)
청강생(중: \$30) - 강의만 듣길 원하는 모든 신자 대상
- 등록 마감: 11월 18일(월)
- 연수 신청: <https://forms.gle/5pcJjaulTdU2sdXh9>

주님 성탄 대축일 행사 안내

- 일시: 12월 24일(화), 오후 6시부터
- 일정: ① 음악 발표회: 오후 6시 - 7시 40분, 체육관
②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오후 8시, 대성당
③ 리셉션: 미사 후, 체육관
-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교우 간의 친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스템(Tithe.ly) 사용 안내

- 방법1: 온라인 봉헌 웹사이트 <https://give.tithe.ly> 에서 봉헌
※ 주보·웹사이트 QR 코드로 온라인 봉헌 바로 연결
- 방법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봉헌
※ 구글 플레이·애플 앱 스토어에서 "tithe.ly"로 검색·설치
- 봉헌시 [Member ID] 란에 신자번호(또는 전화번호) 기입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웹사이트 [온라인 봉헌 안내] 참고 <https://www.tvkcc.org/onlinegiving/>

11월 반모임 일정(www.tvkcc.org/2024cellmeeting)

루카 3	11/17(주일) 5:00PM	Room A	619 889 7835
------	------------------	--------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140	\$386	\$3100	\$150	\$150	\$4936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남석훈(10-12), 송형철(9-12), 이재실(8,9), 이종구(8-12), 지영민(11,12), 함종식(11), 황준영(11)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남석훈(10-12), 이재실(8,9), 이종구(8-12), 함종식(11)

Bishop's Appeal

남석훈(10-12), 이재실(8,9), 이종구(8-12), 함종식(11)

간식봉헌 이동익 유스토·이형숙 한나

11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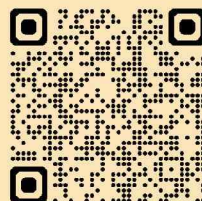
자녀를 잃은 모든 이

For anyone who has lost a child

아들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all parents who mourn the loss of a son or daughter find support in their community and receive peace and consolation from the Holy Spirit.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큐알코드 스캔하고

온라인 봉헌 페이지로 바로 가기

Scan To Online Donate

